

전북서 전통시장 활성화 6점 부문별 수상자 배출

전북 중기청, 대통령 단체표창에 전주시·국무총리상에 임실전통시장 등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안남우)은 지난 4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유공자(이하 유공자)에 대한 정부 포상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번 수여식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서울 본 행사장과 전국 13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전통시장(6곳) 현장을 영상으로 연결하는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됐다. 올해 전통시장 유공자 포상은 유공상인, 우수시장, 지원기관, 지원기관 임직원 등 총 4개 부문으로, 전북은 전통시장 유공자 포상에서 총 6점의 부문별 수상자를 배출했다.

전주시(시장 김승수)가 지원기관 부문에서 대통령 표창의 영예를 차지했다. 전주시는 전주남부시장에 전국 최초로 청년몰을 조성, '청년 상인 육성'이라는 새로운 정책을 개발했고, 화재 피해로부터 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상인들이 '전통시장 화재공제에 가입할 경우 가입료의 70%를 지원하는 등 전통시장 활력 회복에 앞장섰다. 우수시장 부문에서 국무총리표창을 받은 임실전통시장(회장 김명수)은 장날 노점상 운영 등 다기능 주차장 활용 등 다양한 마케팅 활동으로 고객 증가 및 매출 신장 효과를 거두어 전

통시장이 나아가 할 방향을 제시하는 등 전통시장 활성화에 이바지했다. 안남우 청장은 "코로나19 위기 속에 전주시가 전국 최초의 착한 임대인 운동과 대한민국 동행세일을 추진하는 등 상인들과 정부가 합심해 위기 극복에 나섰다, 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비대면 거래 확산에 따라 전북지역 전통시장과 상점가도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대안을 모색해야 하는 시기인 만큼, 2025년까지 온라인 장보기 등 전통시장의 디지털화와 스마트 상점 보급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용진)은 지난 4일 전통시장 활성화 유공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소상공 매출 향상·지역경제 활성화 '결실'

국민연금, 전통시장 활성화 유공 대통령 표창 수상
고객 맞춤형 배송 서비스 '걱정마요 김대리' 등 통해
전통시장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제고 매출 향상에 기여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용진)은 지난 4일 전통시장 활성화 유공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은 공단이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을 2011년부터 꾸준히 추진해 소상공인의 매출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 받은 결과다. 그간 공단은 기존의 전통시장 단순 구매지원의 한계를 인식하고, 전통시장이 자체 역량 강화를 통해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차별화된 아이템

을 지속 발굴해 추진해왔다. 특히 '걱정마요 김대리' 고객 맞춤형 배송 서비스, 전통시장 무료 컨설팅 등을 통해 전통시장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제고하고 매출 향상에 기여해 왔다. '걱정마요 김대리'는 새내 행사 맞춤형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로 2014년 서울 망원시장 지원을 시작으로 전주 신중양시장까지 확대 추진한 결과 월 평균 매출이 약 5배가 증가하는 실적을 달성했다. 또한 공단은 운영의 전문성을 활용,

소상공인 무료법률자문 및 정보안전 컨설팅을 통해 전통시장 경영 효율화에도 기여했고, 지난 2011년부터는공단 본부 및 전국 지사에서 총 18개의 전통시장과 1사 1시장 자매결연 사업을 추진했다. 최근에는 지난 10월 전북지역 전통시장을 알리기 위해 부안군에 있는 '곰소 잣밭시장' 소개영상을 촬영해 유튜브 채널에 게시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김용진 이사장은 "그동안 지역상생을 위해 힘없이 노력한 공로를 인정 받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역현안에 꾸준한 관심을 갖고 더없이 잘사는 사회를 위해 공단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사회적 가치 창출 위한 노사 공동선언문 채택

전기안전공사, 사회공헌활동
의무제 등 지역상생 노력 나서



지난 3일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조성완 사장과 현진무 노동조합 위원장이 함께 한 가운데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노·사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지난 3일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조성완 사장과 현진무 노동조합 위원장이 함께 한 가운데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노·사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노·사 대표는 이날 선언에서 최근 코로나 재확산으로 위기에 처한 지역 사회를 살리는 일에 노·사가 따로 있을 수 없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사회공헌활동 의무제' 등 지역상생의 가치경쟁을 위한 노력에 함께 나서기로 했다. 공사 노·사는 이를 위해 ▲공동 사회공헌 프로그램 운영, ▲취약계층 전기설비 개선, ▲외국인 근로자 정착 지원 활동 등을 공동으로 펼쳐 나가기

로 약속했다. 조성완 사장은 "어려운 시기 일수록 우리 국민은 늘 하나가 되어 이겨내 왔다"며 "공사 노·사도 함께 뜻을 모아 위기 극복을 위해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현진무 노조위원장도 "공사의 나눔 활동에 적극 협조

해 나가겠다"고 회답했다. 한편, 노·사는 공동선언 후 첫 합동 사회공헌 활동으로 전북지역 취약계층을 위한 '선물 꾸러미'를 포장해 곧 전달할 계획이다. 선물 꾸러미에는 도내 소상공인과 중증 장애인 생산한 생활용품 등이 담겼다. /김윤상 기자

'51돌 기념' 정기예금 특관

전북은행, 오늘부터 11일까지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이 오는 10일 창립 51주년을 맞아 코로나19 확산으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고객들을 위해 오늘부터 11일까지 '창립 51주년 기념 고객감사 정기예금'을 판매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이 오는 10일 창립 51주년을 맞아 코로나19 확산으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고객들을 위해 오늘부터 11일까지 '창립 51주년 기념 고객감사 정기예금'을 판매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특관예금의 가입금액은 300만 원 이상 5억 원 이하 가입이 가능하고 기간은 12개월로 금리는 최대 연 1.50%(우대금리 연0.80% 포함)다. 판매한도는 500억 원으로 소진 시에는 조기 종료될 예정이다.

이번 정기예금은 시장금리부정기예금 고시금리에 기본우대금리 연 0.20% 뿐만 아니라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최대 연 0.60%의 우대금리를 추가로 제공해 준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응원과 창립 51주년을 맞아 고객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

아 정기예금 특관을 준비했다"며 "전북은행은 앞으로도 고객과 함께 하는 100년 은행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다양한 서비스로 누구에게나 따뜻한 금융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특관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jbbank.co.kr)에서 확인하거나 콜센터(1588-4477)에 문의하면 된다. /김윤상 기자

올원뱅크 '황금상자를 열어라'

NH농협은행 전북본부, 22일까지 이벤트 실시
응모 고객 중 선착순 8000명에게 모바일상품권

NH농협은행전북영업본부(본부장 장기호)는 4일부터 22일까지 모바일 플랫폼인 '올원뱅크'에서 '황금상자를 열어라'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마·에능 시청, 핫딜 등의 생활 컨텐츠를 제공해 인기를 끌고 있는 모바일 생활금융 플랫폼으로, 출시 4년만에 가입자 수 600만 명을 앞두고 있다.

이번 이벤트는 올원뱅크에 신규 가입 후 이벤트 코드 입력창에 정답을 입력하고 이벤트에 응모한 고객 중 선착순 8,000명에게 네이버페이 모바일상품권(5,000원)을 제공하고, 추첨을 통해 ▲아이폰12 미니(2명) ▲애플워치(3명) ▲일리 커피머신(5명)을 제공한다. 이벤트 코드의 정답은 네이버 검색창에서 '올원뱅크'를 검색하면 나오는 '올원뱅크 포스트'에 등재되어 있는 게시물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올원뱅크는 송금, 환전, 공과금납부 등의 금융서비스와 드라

농진청,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단계적으로 확대기로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디지털 농업 연구와 개발 성과를 실증하고, 농업인 대상 지능형 농장(스마트 팜) 실용교육을 위해 조성한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시범 운영 지구) 교육장'(지능형 농업 교육장)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지난 4일 밝혔다. 농진청은 이미 2018년부터 올해까지 전국 70곳의 농업기술센터에 지능형 농업 교육장이 문을 열었으며, 2021년 까지 전체 96곳으로 늘려나갈 예정이다.

지능형 농업 교육장은 지역별 대표원예·과수작물을 각각 지능형 온실과 지능형 과원에서 재배하며, 지능형 농장 도입 농가를 위한 현장 실습장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영농정보를 지능형 농업 교육장에서 수집해 지역별·품목별 현장지도에 위한 빅데이터로 활용하고 있다.

지능형 농업 교육장은 '스마트농업 전문지도사' 양성을 위한 실습공간으로도 이용된다. 스마트농업 전문지도사는 작물의 재배생리와 정보통신기술을 연계한 생육 컨설팅(자문·현장지도), 스마트농업지원시스템을 통한 농업인별 맞춤형 지도 등 농업인의 디지털농업 기술수요를 지원하고 있다. /김윤상 기자



김정렬 국토정보공사 사장과 문성유 자산관리공사 사장.(사진 왼쪽부터)

국공유재산관리·공간정보 분야 협력

LX-캠코, 업무협약 체결

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김정렬, 이하 LX)와 한국자산관리공사(사장 문성유, 이하 캠코)는 지난 4일 LX서울지역본부에서 '국공유재산관리·공간정보 분야 협력 및 해외진출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오고 있다. 또한 캠코도 중남미 국가 등을 대상으로 미활용 국유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국가수입을 증대할 수 있도록 전문성과 노하우를 전수해 국가자산 가치 제고에 앞장서고 있다.

LX 김정렬 사장은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처럼 두 기관 간 강점을 활용한 협업이 시너지를 창출하고 공공기관의 해외진출을 선도하는 사례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번 협약은 국토정보 전문가인 LX와 국유재산관리 전문가인 캠코가 양 기관의 강점을 살려 협업함으로써 해외시장 진출을 물론 국내·외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편, LX는 최근 한국전기안전공사와 빈집 및 상가 실태조사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유관기관, 자치단체와의 협업을 이어오고 있다. 이날 업무협약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 의무 착용, 참석자 간 거리유지, 참석인원 최소화 등 철저한 방역지침 준수하여 진행됐다. /김윤상 기자

협약 내용은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정보 공유 ▲공간정보 구축 및 활용 활성화를 위한 정보 공유 ▲해외공동 진출을 위한 마케팅, 사업 발굴 및 수행 ▲직원 교류 및 업무 노하우 공유 등이다. LX는 세계적으로 높이 평가받고 있는 '토지행정시스템 구축' 등의 경험을 바탕으로 우즈베키스탄, 우루과이, 인도네시아 등 전 세계 38개국에 한국의 토지정보와 기술과 경험을 공유해

부안농협, 상호금융예수금
3000억원 달성탑 수상

부안농협(조합장 김원철)은 11월 27일자로 예수금 3,000억 원을 달성해 농협중앙회로부터 '상호금융 예수금 3천억원 달성탑'을 수상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부안농협은 2015년 10월 예수금 2,000억 원을 달성한 이래 5년만에 3,000억 원 달성이라는 쾌거를 이루었으며, 이는 코로나19 등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전 임직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사업추진에 매진한 결과로 평가된다.

부안농협은 농업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공익기금 마련사업인 '나 같이 동행예금'을 추진하고 있으며, 조합원과 취약농가를 위한 마스크 배부 및 김장김치를 전달하는 등 농업인 실익사업과 사회공헌 활동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김윤상 기자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